

전일동향

전일대비 0.60원 상승한 1,313.50원에 마감

12일 환율은 전일대비 0.60원 상승한 1,313.50원에 마감했다.

이날 환율은 NDF 증가를 반영해 전 거래일 대비 0.10원 상승한 1,313.00원에 개장했다. 미국 CPI 결과 등을 소화하며 소폭 상승 출발한 환율은 달러인덱스와 역외 달러-위안 상승에 연동되어 1,317원 부근까지 상승폭을 확대했으나 수출업체 네고 등에 상단이 제한됐다. 오후 장에서 환율은 1,315원 부근을 횡보했고 장 후반 상승폭을 축소하며 1,313.50원에 마감했다. 장중 변동 폭은 6.30원이었다. 한편, 이날 외환시장 마감시점의 엔-원 재정환율은 905.23원이다.

전일환율변동	구분	시가	고가	저가	종가(15:30)	평균환율 (매매기준율)
	달러	1313.00	1317.50	1311.20	1313.50	1314.10
엔화	902.95	909.87	902.40	906.48	-	
유로화	1440.42	1445.86	1436.40	1438.38	-	

F/X(달러-원) 스왑포인트	1M	3M	6M	12M
	보장환율(수출)	-1.31	-6.05	-12.83
결제환율(수입)	-0.95	-5.12	-11.1	-22

* 해당월 최종영업일까지의 스왑포인트, 전일자 청약고객이 수취한 스왑포인트

* 당일 청약시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하는 바, 자세한 사항은 환위험관리 지원센터(<https://www.ksure.or.kr/rh-fx/index.do>) 확인

금일 전망

위험선호 위축과 위안화 약세에...1,310원대 중심 등락 전망

NDF에서 환율은 스왑포인트(-2.30원)를 고려하여 전 거래일 현물환 증가(1,313.50) 대비 0.05원 상승한 1,311.25원에서 최종호가 됐다.

금일 환율은 위험자산 리스크 오프와 위안화 약세에 상승이 예상된다. 미국 12월 PPI, Core PPI가 전월대비 -0.1%, 0.0%로 시장 예상치(0.1%, 0.2%)를 하회하며 미국채 금리는 하락세를 보였으나, 중동지역 지정학적 위험과 대만 민진당의 라이칭더 후보 총선 당선 소식에 따른 양안 갈등 우려로 리스크 온 심리는 다소 위축되었다. 한편, 미국 연방정부 섯다운 마감시한이 임박하면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뉴욕증시를 비롯한 글로벌 위험자산 투심을 위축시켰다. 이에 국내 증시 또한 외국인 자금 이탈 가능성이 농후하여 금일 환율은 상승 압력이 우세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중국 CPI가 3개월 연속 전년대비 마이너스를 기록했고 중국인민은행의 MLF 금리 인하 기대에 따른 위안화 약세 압력 확대는 환율 상승 분위기에 일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수출업체 네고물량 유입 등은 상단을 경직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일 달러/원 예상 범위	1308.25 ~ 1317.25 원
---------------	---------------------

체크포인트	■ 전일 외국인 주식 매매 동향 : -2142.51 억원
	■ 뉴욕 차액결제선물환율(NDF) : 전일 서울외환시장 현물환 대비 0.05원 ↑
	■ 美 다우지수 : 37592.98, -118.04p(-0.31%)
	■ 전일 현물환 거래량(종합) : 111.71 억달러
	■ 전일 외국인 채권매매 동향 : +3029 억원

※ 본 리포트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외부기관으로부터 획득한 자료를 인용한 것으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